

‘사회적 시간’의 고고학적 연구*

- 한국 청동기시대 농경사회로의 전환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

고 일 흥**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과거의 ‘사회적 시간’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의 방법과 그 해석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사회적 시간’ 개념에 주목하는 것은 시간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과거의 시간 인식은 과거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고학 분야에서 그간 진행된 시간 관련 연구를 보면 시간이 왜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 산물’인지에 관한 논의가 미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사회적 시간’ 개념의 확립에 기여한 담론과 실증적 사례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시간이 ‘사회적인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아울러 인류학 분야 등에서 진행된 기존의 사례연구들을 참고하여 과거의 ‘사회적 시간’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주제어: 사회적 시간, 고고학, 과거 사회, 시간 체계, 한국 청동기시대 농경사회로의 전환

Social time, archaeology, past societies, time system, transition to farming society, Bronze Age Korea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석기시대 수렵-채집사회에서 청동기시대 농경사회로의 전환이 시간 체계의 변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사회적 시간’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가 한국 청동기시대 농경사회로의 전환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타진하였다.

1. 머리말

고고학은 물질자료를 통해 과거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고고학자들은 주거, 생계, 기술, 교류, 매장, 환경, 제의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과거 사회의 모습을 복원한다. 또한 그러한 과거 사회의 모습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간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물론, 인류사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까지 추구한다. 한편, 최근에 와서는 젠더고고학, 인지고고학, 경관고고학과 같은 새로운 연구 분야의 정착으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물질문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도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다각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고고학의 경향 속에서 과거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여전히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고고학자라면 늘 시간을 다룬다. 편년안을 수립하거나 연대를 측정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유구나 유물의 분포 패턴을 관찰할 때에도 그 패턴이 여러 시점에 일어난 행위들의 적층된 결과임을 - 즉, 그 패턴에 내재된 시간성을 - 인지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과거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의 ‘시간’이지 과거 사람들의 ‘시간’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거 사람들의 시간은 유의미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그간 고고학 내에서 진행된 시간 연구를 보면 과거 사람들의 시간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관련 논의를 보면 시간이 ‘사회적으

로 구성되었음’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전제를 바탕으로 시간 인식의 재생산, 시간의 다원성, 사회적 기억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왜 사회적 산물인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정작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사회적 시간’ 개념이 고고학적 고뇌의 결과가 아니라 인류학 분야에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시간’에 대한 원론적 검토의 부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시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시간이 어떻게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 이해가 없다면 시간 연구가 과거 사회를 이해하는 데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사회적 시간’ 그 자체를 고고학적 시간 연구의 중심에 세움으로써, 한국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맥락 속에서 사회적 시간 연구의 해석적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고고학에서 그간 진행된 시간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 ‘사회적 시간’ 개념의 확립에 기여한 고고학 이외의 분야들로 눈을 돌려, 사회적 시간에 관한 담론을 검토하고, 그 분야들에서 진행된 사회적 시간 연구의 구체적 방법론과 그 고고학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 청동시대의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경사회로의 전환 문제를 ‘사회적 시간’이라는 렌즈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최근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한편, 시간 연구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한국 고고학에서 시간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보여주고자 한다.

2. 고고학의 시간 연구

고고학은 근대 학문으로 성립된 그 시점부터 시간에 관한 성찰을 동반했다. 다만 그 성찰의 대상이 되었던 시간은 주로 편년이나 연대측정과 관련된 ‘측정의 단위’로써의 시간이었다. 고고학자들이 시간에 대해 더 폭넓고 비판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로, 마크 레오니의 논문 『미국 고고학에서의 시간』이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¹⁾ 이 논문에서 레오니는 고고학 자료에 반영된 과거 사람들의 시간관은 물론, 고고학자의 현대 시간관이 과거 해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함을 설파했는데, 이러한 그의 주장에는 과거의 모든 과정들이 연구 가능하다는 과정주의 고고학의 패기와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²⁾ 이후, 베일리³⁾도 과거의 시간관이 현재와는 달랐을 것임을 강조하고, 생스와 킬리⁴⁾가 현재 고고학자의 ‘추상적’ 시간⁵⁾과 과거 사회의 ‘실체적’(substantial) 시간⁶⁾을 구분하면서 고고학에서의 시간 담론은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 시간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과거 사회에서의 시간 그 자체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

1) M. Leone (1978), “Time in American Archaeology”, *Social Archaeology: Beyond Subsistence and Dating* (eds. C. L. Redman et al.), New York: Academic Press.

2) G. Lucas (2005), *The Archaeology of Time*, Oxford: Routledge, p. 28.

3) G. Bailey (1981), “Concepts, time-scales and explanations in economic prehistory”, *Economic Archaeology* (eds. A. Sheridan and G. Bailey), Oxford: British Archaeological Reports International Series 96; G. Bailey (1983), “Concepts of time in Quaternary prehistor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2, Annual Reviews.

4) M. Shanks and C. Tilley (1987), *Social Theory and Archaeology*, Oxford: Polity Press, p. 128.

5) 역사적 사건과 괴리된 ‘단위로 측정되는 시간’(time measured in units)으로, 근대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6) ‘표시되는 시간’(time marked)으로, 전통적 사회들에서 확인된다.

어졌는데, 이때 시간은 흔히 ‘인간 실천의 장 속에서 발생하는 경험을 통해 구현되고 재생산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관련 주제로는 사회적 기억, 과거 사람들의 과거 혹은 미래 인식, 그리고 시간적 순환 주기(temporal cycle) 혹은 시간성(temporality)의 문제 등이 있다. 한편, 시간은 공간과 함께 사회적 경관을 형성하는 데 개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회적 경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시간이 다루어지기도 한다. 배럿,⁷⁾ 벤더,⁸⁾ 고스든,⁹⁾ 토마스¹⁰⁾ 등의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인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거시적 경관뿐만 아니라 미시적 경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하이데거¹¹⁾ 및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인골드¹²⁾의 ‘거주’(dwelling) 개념에 이어 르페브르¹³⁾의 ‘리듬 분석’(rhythmanalysis) 개념이 고고학자들에 의해 수용되면서 일상적 실천의 리듬을 통해 과거 시간에 다가가려는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다.¹⁴⁾

고고학적 시간 연구의 두 번째 경향은 과거 시간 주기의 다수성(multiplicity of temporal cycles)을 다룬 연구들에 의해 대변된다. ‘시간 주기’의 다수성이라 하면 흔히 아날 학파(Annales School)의 이론을 도입한 고고학적 연구를¹⁵⁾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시간 주기의 다수성에 대한

-
- 7) J. Barrett (1994), *Fragments from Antiquity*, Oxford: Blackwell.
 8) B. Bender (1993), *Landscape: Politics and Perspectives*. Oxford: Berg.
 9) C. Gosden (1994), *Social Being and Time*. Oxford: Blackwell.
 10) J. Thomas (1996), *Time, Culture and Identity*, London: Routledge.
 11) M. Heidegger (1962), *Being and Time*, New York: Harper & Row.
 12) T. Ingold (2000), *Th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essays o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London: Routledge.
 13) H. Lefebvre (2004), *Rhythmanalysis: Space, Time and Everyday Life* [S. Elden and G. Moore trans.], London: Continuum.
 14) 예를 들어, 집 주변의 텃밭(garden)에서 진행된 원예 작업의 리듬을 통해 신석기시대 발칸지역에서의 시간성을 다룬 므레쿠스의 연구가 있다. D. Mlekuž (2010), “Bodies, houses, and gardens: rhythm analysis of Neolithic life-ways”, *Documenta Praehistorica* XXXVII, Department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Ljubljana.

인식은 과거에 복수의 시간 주기가 존재했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수의 주기에 따라 일어났던 과거 현상들을 고고학적 역사 서술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넘어, 고고학적 연구 방법론이나 과거 사회변동을 바라보는 태도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베일리¹⁵⁾는 고고학적 현상마다 서로 다른 시간적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시간적 해상도에 따라 고고학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해석적 방법론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거에 존재했던 여러 시간 주기 중에 고고학적 분석에 적합한 시간 주기가 따로 존재하는 만큼, 바로 그러한 시간 주기와 결부된 고고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데 고고학자들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베일리¹⁷⁾의 입장을 두고 ‘시간 관점주의’(time perspectivism)라고 부른다.

시간 주기의 다수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베일리가 궁극적으로 설파했던 것이 고고학적 연구에 적합한 시간 주기 및 관련 고고학적 현상의 파악, 그리고 그러한 연구에 필요한 방법론의 개발이었다면, 또 다른 일련의 연구자들은 시간 주기의 다수성 문제를 ‘사회변동’에 대한 해석과 결부시키기도 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원전 3천년부터 기원후 2천년까지 중반까지 미국 중부지역에서 일어났던 문화변동의 양상을 살펴본 코브¹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미국 중부지역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 서술함에 있어 두 개의 시간 주기에 주목했는데 - 농업경제의 전

15) 예를 들어, J. Bintliff (1991), *Annales School and Archaeology*,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B. Knapp ed. (1992), *Archaeology, Annales, and Ethno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 G. Bailey (1981); G. Bailey (1987), “Breaking the time barrier”, *Archaeological Review from Cambridge* 6, Archaeological Review from Cambridge.

17) G. Bailey (2008), *Time in Archaeology: Time Perspectivism Revisited*,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18) C. R. Cobb (1991), “Social reproduction and the longue durée in the prehistory of the midcontinental United States”, *Processual and Postprocessual Archaeologies* (W. Prucel ed.), Carbondale: Center for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개와 관련 있는 장기주기와 교역망의 전개와 관련 있는 중기주기가 그것
이야 - 흥미롭게도 장기주기에서는 점진적 '발전'의 양상이 포착되었으
나, 개별적 중기주기에서는 흥망성쇠의 순환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브는 결국 이를 바탕으로 사회변동이 단선적이지도, 점진적이지도 않
을 수 있음을 주장하게 되었다.¹⁹⁾ 이렇듯 시간 주기의 다수성에 대해 인
식은 각각의 시간 주기에 따라 일어나는 사회·문화 변동의 다층성과 다
양성에 대한 이해를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이해는 궁극적으로는 인류사
에 있어서 '변동'에 대해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
다고 한다.²⁰⁾

시간 연구의 세 번째 경향에서는 시간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강조되
고 있으며, 특히 근대 학문으로서의 고고학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인식이
과거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우선, 서양 근대 학문으로서의 고고학이 가지고 있는 근대적
시간관에서는 시간이 단선적이며 균질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
한 시간관을 견지할 경우에는 '역사적 과정' 역시 단선적이며 균질한 것
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²¹⁾ 참고로, 이러한
시간관에서 비롯된 역사 서술 방식을 두고 흔히 '전체론적'(totalizing) 서
술이라고 비판적으로 부른다.²²⁾ 한편, 일각에서는 고고학의 근대적 시간
관으로 인해 '타자'의 시간관이 간과되고, 이로 인해 역사 서술에서도 왜
곡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1994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세계고고학대회'(World Archaeological Congress)의 세션과 그 발표문을 바
탕으로 한 『시간과 고고학』²³⁾의 글들에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19) C. R. Cobb (1991), p. 177.

20) G. Lucas (2005), p. 17.

21) 예를 들어, M. Shanks and C. Tilley (1987), pp. 127-136.

22) G. Lucas (2005), p. 13.

23) T. Murray ed. (1999), *Time and Archaeology*, London: Routledge.

고고학의 근대적 시간관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탐색은 이후로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일례로, 근대적 시간관과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편년안의 설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러한 편년의 틀 안에서 과거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작업의 한계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기원전 3천년기의 그리스 고고학의 사례를 통해 최근에 진행된 바 있다.²⁴⁾

이렇듯 고고학자들은 그동안 ‘사회적 시간’ 개념을 바탕으로 과거 시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이때 시간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마치 명백한 사실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고고학자들은 시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측면에 대해 ‘말’만 할 뿐, 시간이 왜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 산물로 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사실 사회적 시간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초 이래로 특히 인류학 분야에서 진행된 담론과 실증적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 부끄럽게도 흔히 그러하듯이 – 이웃 분야의 지적 전통에서 ‘시간이 사회적이다’라는 결론을 빌려오고 그에 입각해서 새로운 고고학적 방법론이나 해석적 접근을 개발하면서, 그 결론이 형성된 지적 맥락에 대해서는 주체적으로 파악하지도 않았고 평가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시간을 대하는 고고학자들의 수동적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 혹은 엄연히 말하면 ‘시간 인식’이 –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 내에서 구성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성립되어야지만 과거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시간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고고학자들이 주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인류학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적 시간 담론을 검토하고, 사회적 시간들 다룬 실증적 사례 연구들도 살펴볼도록 하겠다.

24) A. Hadji (2004), “The Construction of Time in Aegean Archaeology: Archaeological Time and Third Millennium BC Aegean Chronology”,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3. 사회적 시간 담론과 실증적 연구²⁵⁾

3.1. 사회적 시간 담론

추상적이고 절대적인 '자연과학의 시간'이나 철학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원론적 시간'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사회적 시간'이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20세기 초 부터이다. 시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뒤르켐²⁶⁾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시간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시간 인식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사회적 범주화의 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고 한다.²⁷⁾ 즉, 뒤르켐은 시간 인식의 제 요소들이 - 시간을 분절한 단위들의 길이와 배열양상, 시간적 흐름의 패턴, 시간을 계산하고 표현하는 방법 등 - 해당 사회의 경제적 및 생태적 맥락은 물론, 그 기술적 장비체계나 의례체계, 정치조직 등의 영향을 받으며, 바로 이 때문에 사회마다 시간 인식의 제 요소들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²⁸⁾

시간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 이와 같은 뒤르켐의 입장은 이후 영국의 사회인류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²⁹⁾ 기능주의적 입장을 견지

25) 제3장의 내용은 2012년 12월 21일에 “시간과 문명 - 시간의 인식, 활용, 표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시간’ - 문명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이를 대폭 수정 및 확장한 것임을 밝혀둔다.

26) E. Durkheim (1976 [1912]),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London: Allen and Unwin.

27) W. Bergmann (1992), “The Problem of Time in Sociology”, *Time & Society* 1(1), Sage Publications, p. 83.

28) J. Goody (1991 [1968]), “Time: Soci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16 (D. L. Sills ed.), New York: Macmillan, p. 31.

29) 물론 시간에 관한 뒤르켐의 접근은 이후 아날 학파의 역사학자들(르페브르, 블로크, 브로델)과 부르디외 등과 같은 사회학자들에 의해서도 계승되었다. W. Bergmann (1992), p. 83.

한 말리노프스키³⁰⁾는 ‘시간-계산’(time-reckoning)을 중심으로 사회적 시간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간-계산을 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작업들을 조직화하고, 특정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혹은 일어날지를 표시하고, 또한 특정 기간의 시간적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도구로 여겼다. 시간-계산을 연구하기 위해 말리노프스키는 계절, 하루, 혹은 하루의 구성 요소 등 시간 단위(time unit)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어휘를 분석하기도 했고, 시간-계산의 기준이 된 현상들을 확인하기도 했다.³¹⁾ 가령, 후자와 관련해서는 트로브리안드 군도 주민들의 시간-계산에서 기준점이 되었던 것은 텃밭 가꾸기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 등과 같은 인간의 행동임을 확인했다.³²⁾

에반스-프리티차드³³⁾의 경우에는 누에르족의 시간을 연구함에 있어서 ‘생태적 시간’(ecological time)과 ‘구조적 시간’(structural time)을 구분한 것이 아주 중요한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그는 뒤르켐의 ‘사회적 시간’을 수용하면서(‘구조적 시간’이 이를 반영한다), 한편으로는 종교적·정치적 맥락에서 벗어난 또 하나의 시간 범주인 ‘일상적 시간’(‘생태적 시간’이 이를 반영한다)을 설정할 수 있었다.³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누에르족의 생태적 시간은 그들의 생태적 환경 속에서 진행된 일련의 경제적 및 사회적 작업들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만큼, 특히 누에르족 사회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30) B. Malinowski (1927), “Lunar and seasonal calendar in the Trobriands”,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57,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31) N. Munn (1992), “The Cultural Anthropology of Time: A Critical Essa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1, Annual Reviews, p. 96.

32) B. Malinowski (1927).

33) E. Evans-Pritchard, (1939), “Nuer time reckoning”, *Africa* 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E. Evans-Pritchard (1940), *The Nuer*. Oxford: Clarendon.

34) A. Gell (2000), “Time and Anthropology”, *Time in Contemporary Intellectual Thought* (P. J. N. Baert ed.), Amsterdam: Elsevier Science B. V, pp. 254-255.

한편, 누에르족의 구조적 시간도 주목할 만한데, 구조적 시간은 세대의 흐름 속에서 인식되는 시간이다. 흥미롭게도 누에르족은 전설 속의 조상과 살아있는 세대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계보적 거리가 - 실제로 진행된 세대의 축적과는 상관없이 - 늘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³⁵⁾ 이와 같은 시간관은 의외로 널리 존재한다고 하는데, 레비-스트로스³⁶⁾는 이렇듯 시간의 축적을 인정하지 않는 시간관을 가진 사회를 '차가운' 사회로, 그리고 그 반대로 역사를 인정하는 사회를 '뜨거운' 사회로 규정한 바 있다. 그 이후로 '뜨거운' 사회와 '차가운' 사회를 구분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차가운' 사회들의 경우, 일상적 시간과 축적되지 않은 전설상의 시간 사이의 괴리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극복되는지도 중요한 연구의 초점이 되었다.³⁷⁾ 한편, 리치³⁸⁾는 일부 '원시' 사회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양 극단 사이를 오고 가는 일련의 진동 혹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전환들의 반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리치의 시각은 '차가운' 사회에서의 시간적 이분법을 확인하는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³⁹⁾

레비-스트로스나 리치 등은 특히 시간 인식에 관한 일반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작업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각 문화 혹은 사회 집단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인식 체계의 고유한 특징들이 특히 부각되었다.⁴⁰⁾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 사례로 발리 사람들

35) E. Evans-Pritchard (1940).

36) C. Levi-Strauss (1963), *Structural Anthropology (Vol. 1)*, New York: Basic Books; C. Levi-Strauss (1966), *The Savage Min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37) G. Lucas (2005), p. 62.

38) E. Leach (2004 [1961]), "Two Essays Concerning the Symbolic Representation of Time", *Rethinking Anthropology* (E. Leach ed.), New York: Humanities Press. Oxford: Berg, p. 126.

39) G. Lucas (2005), pp. 62-63.

의 시간 인식을 다룬 기어츠⁴¹⁾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기어츠는 발리 사람들의 순환적 친족관계와 작명방식,⁴²⁾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달력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⁴³⁾ 통해 발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인식 체계의 고유한 특징을 확인했다.⁴⁴⁾ 그들이 “움직임이 없는 현재,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지금”⁴⁵⁾ 속에서 생활하는 만큼, 발리 사람들은 시간성이 결여된 삶을 사는 것으로 여겨졌다.⁴⁶⁾ 이후 이러한 기어츠의 주장은 제의적 시간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발리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일상적 시간을 간과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⁴⁷⁾ 하지만 시간 인식의 범문화적 다양성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기어츠의 연구에 대해 위와 같은 비판이 제기될 무렵, 블로크⁴⁸⁾는 시간 인식에 관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는 인간의 사회적 삶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장(場)이 있는데 - 일상적인 삶의 장과 의례적·이데올로기적 삶의 장 - 각각의 장은 서로 다른 시간 인식을 동반하는

40) G. Lucas (2005), p. 63.

41) C. Geertz (1973 [1966]), “Person, time and conduct in Bali”,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C. Geertz ed.), New York: Basic Books.

42) 즉, 개인은 돌아가신 세대의 인물들 중 동일한 성별을 가졌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심지어 전자가 후자의 환생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대접받는다.

43) 그중 대표적인 달력은 각각 5, 6, 7개의 날이름(dayname)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주기들이 결합된 210일로 이루어진 순열 달력으로, 각각의 날에 해당되는 날이름들의 조합은 그 날의 특징에 대한 묘사이기도 한다. 이 경우, 달력의 날짜들은 방향성을 가진 숫자들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 없이 그 날이 어떠한 ‘종류’의 날인지가 읽혀지는 것이다.

44) A. Gell (2000), p. 258.

45) C. Geertz (1966), p. 404.

46) A. Gell (2000), p. 258.

47) G. Lucas, (2005), p. 63.

48) M. Bloch (1977), “The past and the present in the present”, *Man* 12,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것으로 보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발리 사람들이 의례적 삶의 장에서는 시간을 '움직임 없는 현재'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삶의 장에서는 시간을 직선적인 것으로 인식한다고 블로크가 주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상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직선적 시간과, 의례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되는 순환적 시간을 각각 따로 상정한 것이 블로크가 시간 연구에 기여한 바라고 여길 수 있다. 한편, 블로크의 이러한 시간 구상은 사회·문화인류학에서 시간 연구가 문화적 상대주의에 치우치는 것에 대한 성공적 경고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⁴⁹⁾

이렇듯 인류학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시간 담론은 시간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시간을 편의상 '일상적' 시간과 '의례적' 시간으로 부를 수 있는 두 가지 범주로 흔히 나누어서 살펴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에 관한 이러한 방식의 이해는 과거 시간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3.2. 사회적 시간의 실증적 연구

겔⁵⁰⁾은 사회적 시간에 관한 논의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담론보다는 '시간 활용'이나 '시간 표현'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실증적 연구 중 고고학자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간 지향', '시간 정리', 그리고 '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⁵¹⁾

49) G. Lucas, (2005), pp. 63-64.

50) A. Gell (2000), p. 260.

51) 사회적 시간과 관련해서는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분야 등에서 너무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 모든 연구에 대해 본고에서는 검토할 수 없기에, 그중 고고학

3.2.1. 시간 지향

그간 인류학자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간은 그야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시간의 진행 모습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여겨진다. 시간이 화살과 같이 앞으로 나간다고 보는 사회들도 있고, 시간이 돌고 돈다고 보는 사회들도 있다. 또한 전자 중에서는 시간이 직선과 같은 궤적을 가진다고 보는 사회들도 있고, 시간이 나선형으로 뻗어 나간다고 보는 사회들도 있다. 심지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은 채, 시간이 마치 낱실과 씨실을 엮어서 만든 천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사회들도 있다.⁵²⁾ 그런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시간 인식’을 다룬 논의들은 흔히 일반화를 동반하는 만큼, 해당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확보하는 데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⁵³⁾ 따라서 시간 인식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 지향’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은 과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수 있고, 현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수 있고,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수 있다.⁵⁴⁾ 이러한 시간관의 초점을 다루는 것이 ‘시간 지

에서 참고할만한 접근들과 그 대표적 사례들만을 다루고 있다. 이보다 더 많은 시간 연구 사례들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연구 목록집의 일종인 T. K. Das, *The Time Dimension: An Interdisciplinary Guide*, New York: Praeger을 참고할 것을 권유한다.

52) B. Poole (2000), “On time: contributions from the social sciences”, *Financial Services Review* 9, Academy of Financial Services and the Financial Planning Association, pp. 376-378.

53) W. Bergmann (1992), p. 93.

54) 가령, 현대 서구 사회의 시간관에는 ‘미래 지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래 지향적 시간관’은 17~18세기에 등장한 서양 근대의 산물로, 바로 이때부터 미래가 관심 혹은 문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미래는 ‘열려있는 미래’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것은 오늘날에서와 같이 계획 가능한 것 또한 현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 등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미래 지향적 시간관은 궁극적으로는 사회 정책을 세우는 일이나 나아가서는

향(time orientation)에 관한 연구인데, 이는 특히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사회학자들은 사회 내 특정 계급 혹은 인종집단이 가지고 있는 시간 지향을 확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⁵⁵⁾ 심리학자들은 시간 지향이 개인의 문화적 배경, 사회·경제적 위치, 성격 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⁵⁶⁾ 인류학 분야에서는 현존하는 '원시' 사회들의 시간 지향이 주로 다루어졌는데, 특히 캐나다 중부지역의 베른스 강 소우토우(Berens River Saulteaux) 원주민의 시간 지향을 다룬 할로웰⁵⁷⁾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위니페그 호수(Lake Winnipeg) 동쪽 산림지대에 사는 베른스 강 소우토우 원주민은 하천 주변에서 정착 생활을 하며, 여름에는 낚시, 가을과 겨울에는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 기억할 수 있는 조상과 관련이 있는 사건, 그들이 알고 있는 환경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에서 일어날 현상을 시간의 기준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그들의 시간관은 근거리(local) 지향적인 것으로 규정된 바 있는데,⁵⁸⁾ 베른스 강 소우토우 원주민의 이와 같은 근거리적 시간 지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고학에서는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된 경관을 분석할 때 현대인과 비슷하게 시간을 '멀리' 인식하고, 경관의 적층된 양상과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과거의 주체를 상정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툴리(Tilley 1994)의 경관 고고학에 대한 연구를 들

혁명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W. Bergmann (1992), pp. 86-92.

55) W. Bergmann (1992), p. 85.

56) W. Friedman (2000), "Time and Anthropology", *Time in Contemporary Intellectual Thought* (P. J. N. Baert ed.), Amsterdam: Elsevier Science B. V.

57) A. I. Hallowell (1937), "Temporal Orientation in Western Civilization and in a Pre-Literate Society", *American Anthropologist* 39(4),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58) A. I. Hallowell (1937), p. 669.

수 있고, 거석 기념물의 재사용에 관한 브래들리⁵⁹⁾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포착된다. 그런데 시간 지향이 근거리적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은 이러한 경향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참고로 이러한 근거리적 시간관으로 인해 베른스 강 소우토우 원주민이 실제로 기억할 수 있는 ‘역사’의 길이가 150년이 채 안되고, 그 이전은 다만 “오래 전”인 것으로만 인식된다고 한다.⁶⁰⁾

3.3.2. 시간 정리

시간은 삶의 여러 측면을 정돈해 주는 일종의 ‘정리 원칙’(organizing principle)과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⁶¹⁾ 나아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시간적 규범들에 반영된 시간의 규범적 요소들은 사회 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⁶²⁾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시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들은 사회로부터 나오지만, 역으로 사회 구조의 형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특정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정리’에 관한 원칙들은 주로 ‘시간 계산 체계’(time reckoning system)⁶³⁾와 ‘시간표’(timetable)를 통해 확인된다⁶⁴⁾. 그런데 시간표는 현대 사회에서나 사용되는 것인 만큼, 본고에서는 시간 계산 체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간 계산 체계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시간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준점이다. 왜냐하면 시간을 계산한다는 것은 곧 그 계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행위를 특정한 자연적 혹

59) R. Bradley (2002), *The Past in Prehistoric Societies*, London: Routledge.

60) A. I. Hallowell (1937), p. 667.

61) W. Bergmann (1992), p. 99.

62) M. Schops (1980), p. 47, W. Bergmann (1992), p. 99에서 재인용.

63) 본고에서는 ‘time reckoning’이라는 개념을 일단은 ‘시간 계산’으로 번역은 했으나, 엄연히 말하면 ‘시간을 따지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64) W. Bergmann (1992), p. 99.

은 사회적 현상과 - 즉, 시간 계산의 기준점과 - 연관시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⁶⁵⁾ 그런데 이렇듯 시간을 계산할 때 모든 사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적 혹은 사회적 현상은 없다. 다시 말해, 시간 계산의 절대적 기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사회마다 그 가치체계, 경제·정치·종교 구조, 시간관 등에 따라 시간 계산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수단 가지 현상들 중 몇 가지를 실제 기준점으로 삼는다.⁶⁶⁾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계산 체계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이며,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볼 때 시간 계산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사회의 시간 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에르족은 하루 단위로 시간을 계산할 때 간혹 천체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대체로 하루 동안 일어나는 소의 사육과 관련된 작업들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⁶⁷⁾ 후자를 두고 '소 시계'(cattle clock)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시간 계산 체계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누에르인의 삶에서 소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준다.

시간 계산의 기준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시간 계산의 단위 역시 시간 계산 체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시간 계산의 단위는 '시간에 기반한 시간 분할 단위'(time based intervals)와 '사건에 기반한 시간 분할 단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것이 '시', '주', '달', '년' 등인데, 이와 같은 단위의 사용은 시간이 추상적이고 계측 가능하다고 보는 시간 인식과 관련 있다고 한다.⁶⁸⁾ 후자의 경우, 시간 분할 단위의 길이는 해당 사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단위로 예로 '봄'이나 '점심시간' 등을

65) R. S. Khare (1967), "The Concept of Time and Time-Reckoning among the Hindus. An Anthropological Viewpoint", *Eastern Anthropologist* 20, Ethnographic and Folk-Culture Society, Lucknow, p. 49.

66) W. Bergmann (1992), p. 99.

67) E. Evans-Pritchard (1939); E. Evans-Pritchard (1940).

68) 참고로, 이렇게 추상적이고 계측 가능한 성격을 가진 시간을 분할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숫자에 바탕을 둔 달력이다.

들 수 있다.⁶⁹⁾

한편, 상기의 논의로 인해 시간의 계산이 마치 보편적 현상인양 잘못 여겨질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다. 나이지리아의 티브(Tiv)족은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다만 자연적 혹은 사회적 현상들과 연관해서(예를 들어, 우기, 건기, 장날 등) 시간을 언급한다.⁷⁰⁾ 따라서 시간의 경과를 이야기할 때 ‘몇 번의 건기’ 혹은 ‘몇 번의 장날’이 지났다고 말하지만, 이때 그 ‘몇 번’에 해당되는 숫자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지났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티브족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시간 분할 단위로써의 ‘일’, ‘달’, ‘년’ 개념이 없다. 다만 그러한 현상에 대해 그 횟수와 함께 말함으로써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이 지났음’을 나타낸다.⁷¹⁾

이렇듯 한 사회 내에서 시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 정리의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고고학에서는 이러한 기준점에 대한 연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나는 특정한 기준점이 과거의 시간 정리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에 대한 연구이다.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히 묘사한 유럽 청동기시대의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태양의 움직임을 정확히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영국 스톤헨지 거석기념물, 그리고 별자리의 위치를 정확

69) V. Da Silva Sinha *et al.* (2012), “Event-based time intervals in an Anazonian culture”, *Space and Time in Languages and Cultures* (L. Filipovic and K. M. Jaszczolt eds.), Amsterdam: John Benjamins B. V, pp. 15-16.

70) L. Bohannan and P. Bohannan (1953), *The Tiv of Central Niger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71) V. Smith and P. R. Reed (1978), “Time through Time: An Evolutionary Perspective”, Unpublished expanded version of a paper presented by V. Smith to the American Folklore Society, Portland, Oregon, 1974. http://soar.wichita.edu/xmlui/bitstream/handle/10057/1742/LAJ_v10_p1.pdf?sequence=1.

히 파악했음을 보여주는 청원 아득이 별자리판 등이 그러한 실증적 자료로,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태양, 별, 천체의 시간적 궤적을 제대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기록'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의지는 그 현상이 사회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이 시간 정리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볼 수 있다.

과거의 시간 정리 기준점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사회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준점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마다 다양한 시간 정리의 기준점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생계-경제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들은 - 그것이 자연적 현상이든 사회적 현상이든 - 일상적 삶의 장에서는 물론, 제의적 장에서도 시간 정리의 기준점으로 특히 중요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고고학자들이 구사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 전략은 과거 사회의 생계-경제 양상을 일단 확인한 다음, 생계-경제 전략에 따라 어떠한 시간 정리의 기준점들이 흔히 사용되는지에 관한 인류학의 사례 연구들을 일종의 경험적 도구로 활용하여, 해당 과거 사회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시간 정리의 기준점으로 채택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서로 다른 생계-경제 전략을 구사했던 사회들의 '가능한' 시간 정리 기준점을 비교분석을 할 때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 연구의 결과로 파악되는 시간 인식의 상이성과 상사성은 그 사회들간의 상이성과 상사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제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방식의 가능성을 한국 고고학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3.2.3. 시간 구조

100미터 육상경기의 기록 담당자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와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서 아주 긴 휴가를 즐기는 사람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 전자의 경우, 0.01초에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시간은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측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문득 석양을 보고서야 하루가 또 지나갔음을 깨달을 만큼 시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시간의 활용 양상은 그것을 사용하는 이들의 직업이나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 등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 즉 ‘시간 구조’의 모습은 - 사회적 시간을 살펴보기 위한 또 하나의 주제가 된다.

시간 구조에 대한 연구는 특히 사회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일분일초까지 정확함을 유지해야 하는 철도 관계자들의 시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고, 시간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자들의 시간도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⁷²⁾ 주지하다시피, 이 경우들에서는 사회 전체가 아닌 특정한 분야의 시간 구조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비교 분석을 통한 시간 구조의 연구도 많이 시도되었다. 고대 사회와 근대 사회의 시간 구조를 비교한 사례들이나, 중세시대 전기에서 후기로의 전환에 동반된 시간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산업화된 자본주의 경제가 정착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시간 구조에 대한 톰슨⁷³⁾의 유명한 연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⁷⁴⁾

시간 구조의 고고학적 연구는 문자 생활이 이루어진 사회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한국 고고학의 경

72) W. Bergmann (1992), p. 113.

73) E. P. Thompson (1967), “Time, Work 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Past and Present* 38, Oxford Journals.

74) W. Bergmann (1992), p. 118.

우, 성산산성 등에서 출토된 목간자료를 가지고는 그것에 기록된 시간 계산 단위 등을 파악함으로써 군사 혹은 행정 기관의 시간 구조에 대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군사행정 목간 자료를 통해 시간 구조를 연구하려는 시도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⁷⁵⁾ 또한 국가형성 단계 이후에 국가에 귀속된 공방의 시간 구조에 대한 연구도 기와나 금속기에 남겨진 명문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은제 팔찌에 새겨진 <<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分二百卅主耳>> 명문은 국가 귀속 공방에서 경험되는 시간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실 당시 이와 같은 구조의 시간을 경험했을 집단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귀속 공방의 시간 구조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시간 인식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내에서 국가 귀속 공방 장인들의 사회적 위치와 나아가 정체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4. 사회적 시간 연구의 해석적 가능성 —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청동기시대 농경사회로의 전환

고고학자들이 시간 연구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과거 집단들의 시간 인식에 접근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과거 사회에 대한 더 풍부한 이해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과거의 시간에 대한 연구가 고고학적 논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신석기시대 수렵-채집 사회와 청동기시대 농경 사회의 시간에 대해 탐색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렵-채집에서 농경사회로의 전환 문제를 기존 시간 체계의 소멸과 새로운 시간 체계의 수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다.

75) 최진목(2013), 『중국 고대사회의 시간활용』, 『인문논총』 70, 인문학연구원.

4.1. 농경사회로의 전환을 이해하는 한 가지 시각: 생계-경제와 관련된 시간 계산 체계

한반도에서 일어난 농경사회로 전환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빈약해진 해양 자원이나 인구압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석기시대 주민이 농경을 주된 생계 전략으로 채택했다는 입장도 있고,⁷⁶⁾ 외부에서 이주해 온 농경 집단으로 인해 신석기시대 주민이 수렵-채집에 의존하는 생계 전략을 포기하고 농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도 있다⁷⁷⁾.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기존의 입장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⁷⁸⁾ 농경사회로의 전환 논의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전환의 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신석기시대 문화의 연속적 양상과 외부로부터 온 영향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⁷⁹⁾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따라서 필자는 신석기시대 수렵-채집 사회에서 청동기시대 농경 사회로의 전환을 ‘시간 계산 체계’라는 문화 요소의 연속성, 단절, 그리고 생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겠다.

특정 사회 내 존재하는 사회적 시간에는 여러 층위가 있다. 이 중 많은 부분은 현존하는 집단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고고학적 연구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앞서 살펴

76) J. J. Lee (2001), “From shellfish gathering to agriculture in prehistoric Korea: the Chulmun to Mumun transition”,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C. J. Norton (2007), “Sedentism, territorial circumscription, and the increased use of plant domesticates across Neolithic-Bronze Age Korea”, *Asian Perspectives* 46(1), University of Hawaii Press.

77) J. S. Kim (2003), “Land-use conflict and the rate of the transition to agricultural economy: A comparative study of southern Scandinavia and central-western Korea”,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10(3), Springer.

78) G. A. Lee (2011), *The Transition from Foraging to Farming in Prehistoric Korea*, *Current Anthropology* 52(S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9) G. A. Lee (2011), p. 326.

보았듯이 일상적 생활의 장 속에서 경험되는 시간의 경우,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흔히 생계-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이러한 범주의 사회적 시간은 고고학적으로 접근해볼 만하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렇듯 생계-경제와 관련 있는 ‘시간 계산 체계’이다.

4.2.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생계-경제 및 시간 계산 체계

한반도의 신석기시대에는 다양한 생계-경제 전략이 구사되었다. 신석기시대 식량을 다룬 일련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식물자원(도토리, 밤, 호두, 대추, 자두, 머루)과 해양자원의 채집, 해수어 및 담수어의 포획, 육상 포유류 및 조류의 사냥, 그리고 조, 기장, 팥, 콩과 같은 작물의 재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⁰⁾ 신석기시대 쌀 재배의 경우, 일각에서 그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⁸¹⁾ 청동기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전략들은 많은 부분 유지되었다. 식물자원의 채집과 사냥도 여전히 이루어졌고, 주거지에서 다량으로 발견되는 어망추는 담수어가 여전히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⁸²⁾ 또한 기존의 잡곡류와 두류도 여전히 재배되었다. 청동기시대에 새롭게 추가된 생계 전략으로는 쌀과 맥류(밀, 보리)의 재배⁸³⁾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해양자원의 활용은 이 시기에 들어와서 현

80) 안승모(2013), 『식물유체로 본 시대별 작물조성의 변천』, 『농업의 고고학』, 서울: 사회평론; S. M. Ahn (2010), “The emergence of rice agriculture in Korea: archaeological perspectives”, *Archa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ciences* 2(2), Springer; J. S. Kim (2014), “From Labour Control to Surplus Appropriation: Landscape Changes in the Neolithization of Southwestern Korea”, *Journal of World Prehistory* 27, Springer; G. A. Lee (2011).

81) S. M. Ahn (2010).

82) J. S. Kim (2014), p. 265.

83) S. M. Ahn (2010); G. A. Lee (2011).

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⁸⁴⁾

상기의 모든 생계 전략들은 계절성을 지닌다. 각각의 전략이 어떠한 성격의 시간 체계를 동반하는지를 인류학적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겠지만, 그러한 작업은 다른 지면을 통해 시도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시간 연구를 통해 농경사회로의 전환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이 전환을 기점으로 단절되었던 해양자원의 이용,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쌀과 맥류의 재배를 각각 동반했을 시간 체계의 모습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해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들의 시간 계산에서 어떠한 기준점이 사용될 수 있는지는 캐나다 서부 해안가의 밴쿠버 섬과 프레이저(Fraser) 강 하류에 거주하는 해안가 샬리쉬(Coast Salish) 주민⁸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로와 채집을 주로 하는 이들의 시간 체계에서 중요한 시간 계산의 단위는 우선 ‘달’이라고 한다. 그런데 달을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을 계산한다는 것은 곧 특정 시점으로부터 달이 차고 지는 현상이 몇 번 일어났는지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산의 시작이 되는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흔히 사용되는 기준점은 태양력의 ‘일 년’마다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으로, 태양이나 묘성(昴星)이 하늘의 특정한 위치에 등장하는 시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이 주로 흐린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천체의 움직임이 잘 관찰되지 않아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내륙에 거주하는 샬리쉬 주민의 경우에는 “거위 철새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때”와 같은 계절성이 강한 자연적 현상을 기준점으로 사용한다. 반면 해안가 샬리쉬(Coast Salish) 주민은 태양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어가는 또 다른 현상을 기준점으로 삼는데, ‘조수’

84) 태안 고남리 패총 유적에서 굴과 육상 포유류 및 조류(철새와 오리)의 잔해로 이루어진 청동기시대 패각층이 확인된 바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반도 대부분의 패총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J. S. Kim (2014), p. 266.

85) W. Shuttles (1987), *Coast Salish Essays*, Vancouver: Talonbooks.

가 바로 그것이다.⁸⁶⁾ 즉, 그들은 달의 진행과 연중 간조와 만조가 최고와 최저가 되는 주기를 함께 보면서 시간을 계산한다.

조수의 주기와 달이 차고 지는 현상을 반영하는 이와 같은 시간 체계는 해안가 샬리쉬 주민의 생계-경제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조수가 패류의 채집과 해수어 어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고고학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참고로 해안가 샬리쉬 주민은 여름 계절에 간조가 최고일 때 패류를 집중적으로 채집했다. 그런데 이들은 담수어 어로를 할 때에도 조수를 중요한 변수로 여겼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만조로 강물이 탁해졌을 때 어망을 이용한 낚시가 잘 되기 때문이다. 해안가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생계-경제 행위인 물새의 사냥에서도 조수는 중요하게 작용했다. 계절성이 강한 물새 사냥은 겨울 그믐달 밤의 간조 때 햇불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수렵-채집 사회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동성도 조수와 관련이 있다. 즉, 이 지역에서는 프레이저 강을 따라 해안과 내륙을 오가는 중요한 교통의 수단으로 조수가 활용되었다. 일례로, 프레이저 강의 수위가 낮은 계절에는 사리 때 밀물을 타면 내륙으로 50마일까지 들어온다고 한다. 이렇듯 조수와 달의 주기가 해안가 샬리쉬 주민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시간 계산의 기준점들을 사용했다: 3월쯤에 해당되는 “낮 시간으로의 전환”(shift to day-time), 10월쯤에 해당되는 “밤 시간으로의 전환”(shift to night-time), 그믐에 일어나는 “깜깜한 간조”(dark tide), 그리고 보름에 일어나는 “달 간조”(moon tide).

상기의 내용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해양 자원을 이용하는 집단들 사이에서 조수와 달의 주기가 시간의 계산에 중요하게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이 외에도 많다.⁸⁷⁾ 따라서 해양 자원을 적극적으로

86) 이 지역에서는 달이 변화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도 조수간만의 차에서 주기적 변이가 나타난다고 한다.

활용한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주민도 조수를 시간 계산 체계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서해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갯벌 익사 사고나 백중사리의 “모세의 길” 현상, 그리고 바다낚시꾼들이 남해안의 연간 물때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면(서해안의 연간 물때표는 해당 지역의 달력에 기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그러하다. 한편,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주민이 설령 조수를 시간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안가에서 머무르는 동안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하면서도 주기적인 그 이외의 자연현상을 시간 계산의 기준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농경사회로 돌입하면서 새로운 시간 계산 체계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쌀과 맥류의 경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신석기시대에도 물론 농사는 조와 기장을 중심으로 행해졌지만, 이 작물들은 사실 손이 거의 안가고, 빨라 자라며, 가물에도 잘 견뎌낸다.⁸⁸⁾ 반면 쌀과 맥류의 재배는 손이 아주 많이 가고, 거의 일 년 내내 노동력의 투입을 요구하며,⁸⁹⁾ 또 한 물의 적절한 공급이 이 작물들의 생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쌀 재배의 경우,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곡부와 배후습지에 조성된 논에서 수도작이 이루어졌는데,⁹⁰⁾ 현재까지 확인된 수리시설은 송국리단계 이후로나 비정되므로(논산 마전리),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천수답을 이용한 농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 주민은 물을 쉽게 대고 가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소구획식 논을 조성거나, 하천 범람의 피해

87) 예를 들어, 사모아 군도의 주민, K. Armstrong, D. Herdrich, and A. Levine (2011), *Historic Fishing Methods in American Samoa*, NOAA Technical Memorandum NMFS-PIFSC-24.

88) G. A. Lee (2011), p. 324.

89) G. A. Lee (2011), p. 326.

90) 김민구(출판준비 중), 「세계경제-농경, 채집, 수렵, 어로」, 『한국청동기문화개론』, 서울: 진인진.

에 대비하기 위해 구릉 사면 말단부에 계단식 논을 조성하는 등⁹¹⁾ 물의 관리에 능동적으로 임했다. 하지만 결국 물을 내리는 것은 하늘이었고, 따라서 그 물이 내리는 주기에 잘 맞추어서 경작의 과정을 진행해야만 농사에 성공적일 수 있었다. 한편, 하천의 자연제방에서 경작된 맥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자연제방은 하천의 주기적 범람에 필연적으로 영향받는 만큼, 그러한 범람의 주기를 잘 파악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했을 것이다.

결국 청동기시대 농경민에게 중요한 것은 비가 내리고 하천이 범람하는 주기였을 것이고, 그런 만큼 일 년의 시간적 흐름을 계산할 때 관련 현상들을 기준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이집트 문명의 달력에서 핵심적 기준점이 되는 것이 나일 강의 범람 시점과 거의 항상 일치하는 천랑성의 신출(新出)⁹²⁾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⁹³⁾ 이렇듯 별자리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연중 중요 농사 행위의 시점을 계산하는 시간 체계는 쌀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사회들에서 확인된다. 화전에서 쌀농사를 하는 인도네시아 바랏칼리마탄(West Kalimantan)의 다야(Daya) 주민은 불란 벨라당(Bulan Berladang)이라고 불리는 시간 계산 체계를 이용하는데, 땅을 갈고 벼를 심는 시점은 빈탕티가(Bintang Tiga)라는 별자리와 악어자리의 위치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이 달력이 정하고 있는 농경 행위들의 시점들과 해당 행위에 적합한 강수의 시점들이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⁹⁴⁾ 또한 바랏자바(West Java)의 순다(Sundanese) 주민은 프라나타망사(Pranatamangsa)라는

91) 김민구(출판준비 중).

92) 별이 일 년 중 처음으로 태양이 뜨기 직전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93) N. Grimal (1994), *A History of Ancient Egypt*, Oxford: Wiley-Blackwell.

94) S. Wisnuboro (1997), “An introduction of traditional time “Bulan Berladang” and its sameness to meteorological status and its application in agriculture”, *Jurnal Ilmu Tanah dan Lingkungan* 1(1), Jurnal Ilmu Tanah & Lingkungan.

달력을 사용하는데, 밭을 갈고 벼를 심는 시점뿐만 아니라 사냥이나 어로의 시점까지 알려주고 있는 이러한 시간 계산 체계에서는 남십자성, 묘성, 그리고 오리온 별자리의 위치가 중요한 기준점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묘성의 신출과 오리온 별자리가 저녁 하늘에 나타나는 것은 우기의 시작을 의미하기에, 벼를 심는 시점을 표시하는 중요한 현상으로 여겨졌다.⁹⁵⁾

위의 사례들을 볼 때, 쌀농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청동기시대 한반도에서도 경작에 필요한 주기적 기상 현상을 동반한 별이나 태양의 위치가 중요한 시간의 기준점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참고로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별자리의 기록들이 청동기시대로 소급되고, 농경사회의 기념물인 고인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청원 아득이와 함주 지석리 별자리와 고구려 진파리 4호분 별자리표에서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용자리, 그리고 세피우스자리의 일부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⁹⁶⁾ 이 별자리들이 일년 중 하늘에 떠 있는 위치를 농경과 관련된 자연현상이나 경작행위의 주기와 비교하는 추후의 연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프라나타망사 달력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농경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간 계산 체계 내에서는 수렵이나 어로와 같은 비농경 행위들의 시점까지 계산될 수 있다.

95) S. D. Wiramihardja (2014), "Ethnoastronomy: The Sudanese of West Java and their Relation to Ethnoastronomy". Newsletter, Center of Southeastern Asian Studies, Kyoto University.

96) 박창범·이용복·이용조(2001), 『청원 아득이 고인돌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23(1), 한국과학사학회.

4.3. 시간 계산 체계를 통해 바라본 한국 청동기시대 농경사회로의 전환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농경사회로의 전환은 시간 계산 체계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동반했는가? 우선 이 전환은 앞서 언급했듯이 해양자원 활용의 단절을 가져왔을 것이다. 일례로, 인천·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점유된 신석기시대 후기 취락들이 도서 지역에 흔히 분포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해양 자원의 획득이나 가공과 관련 있는 패총 및 야외노지가 산재해 있고, 또한 짚개살과 같은 어로구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⁹⁷⁾ 반면,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들은 내륙의 구릉 사면이나 정상부, 충적평야 등에 입지하고, 해양 자원의 가공과 관련된 시설의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⁹⁸⁾ 또한 석창의 빈도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인천 연안지역의 경우에는 어망추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⁹⁹⁾ 따라서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해양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기준점을 사용한 시간 계산 체계가 와해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 계산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것은 일종의 '지식 전통'으로, 이 지식 전통의 재생산은 그 지식이 활용되는 현장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진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해안가 셀리쉬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시간 계산에서 활용되는 특정 현상이 몇 번째 달과 관련이 있는

97) 유지인(2012),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주고 연구」, 『한국고고학보』 85, 한국고고학회.

98) 포항 이인리나 진해 용원유적 40호의 추정 어류·해산물 건조장의 존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만약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에서도 해양 자원의 가공이 일어났다면 그 흔적은 남았을 것이다. 이동주·장호진(2012), 「어망추로 본 청동기시대 어로 양상」, 『야외고고학』 14,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pp. 21-22 참고할 것.

99) 박귀철(2011), 「인천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연구: 인천연안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지에 대해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¹⁰⁰⁾ 이는 시간 계산에 관한 지식이 쉽게 와해될 수도 있는 성격의 것인 만큼 프락시스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신석기시대의 시간 계산 체계는 비단 시간 정리의 틀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렵-채집 전략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다시금 해안가 샬리쉬의 예를 들자면, 사냥꾼들은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시간 계산을 유도하기도 했는데,¹⁰¹⁾ 이것은 이 지식 자원의 효용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석기시대의 시간 계산 체계의 와해, 그리고 관련된 지식의 소멸은 곧 식량 획득 기술의 와해도 가져왔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동해안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리만 해류를 타고 대구가 내려오며, 다랑어와 고등어는 난류인 크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상하는데, 패총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어류의 잔해는 신석기시대 주민의 시간 계산 체계가 각종 어류의 회유시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¹⁰²⁾ 그런데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이와 같은 어류 잔해, 그리고 작살 및 결합식조침의 부재는 기존의 해양어로 체계가 붕괴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해양어로 체계의 붕괴와 해양어로과 관련된 기준점을 활용한 시간 계산 체계의 와해는 상호 작용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소실된 해양어로의 ‘시기’에 관한 지식이 다시 복원되는 데에는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농경사회로의 전환 역시 쌀이나 맥류의 재배와 관련된 또 다른 시간 계산 체계의 성립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흔히 그러듯이, 이 체계에서는 기후 현상을 예상하는 천체의 움직임이 기준점으로

100) W. Shuttles (1987), p. 72.

101) W. Shuttles (1987), p. 72.

102) 하인수(2013), 『신석기시대 패총문화의 이해』,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8』,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p. 16.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청동기시대 별자리 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간 계산 체계는 한반도 혹은 남한이라는 상대적으로 좁은 지리적 범위 내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런 만큼, 그것은 하나의 불변의 원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¹⁰³⁾ 이는 궁극적으로 시간 계산 체계를 둘러싼 지식이 앞선 신석기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유하고 유지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성공적인 농사의 필요조건이 되는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와 그에 기반한 시간 체계의 유지 및 재생산은 사회 구성원 일부에 의해서만 독점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밀의적 지식'은 청동기시대의 사회 계층화를 유발하는 하나의 인자로 작용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농경사회로의 전환은 시간 계산과 관련된 기존 지식 전통의 와해, 새로운 시간 계산 체계의 등장, 그리고 시간의 계산과 관련된 지식 전통의 새로운 보유 및 유지 방법의 정착을 가져왔다고 조심스럽게 상정할 수 있다. 이에 우리가 농경사회로의 전환을 능동적 대처의 차원에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강요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신석기시대 수렵-채집 주민이 주도했던 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경제적' 선택이 기존 시간 체계 및 관련 지식 전통의 와해라는 '이데올로기적' 결과도 동반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103) 참고로 신석기시대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해양자원의 양상이 다른 만큼, 그 시간 계산 체계도 지역적으로 달랐을 것이다. 또한 한 지역의 생태계는 늘 변화하기에, 시간 체계에 사용되는 기준점들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신석기시대의 시간 계산 체계가 하나의 원칙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사회적 시간’의 고고학적 연구 방법론을 모색했고, 또한 사회적 시간에 대한 연구가 한반도에서 일어난 농경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고고학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 살펴보았다. 농경사회로의 전환 문제를 시간 체계의 전환으로 풀어갔던 시도는, 유럽의 신석기화 과정을 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서구 고고학의 연구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유럽 신석기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후 현대 고고학에서 선사시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장을 열었듯이, 본 논문의 시도도 한국 고고학에서 시간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상기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곽귀철(2011), 『인천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연구 : 인천연안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 김민구(출판준비 중), 『생계경제-농경, 채집, 수렵, 어로』, 『한국청동기문화개론』, 서울: 진인진.
- 박창범·이용복·이용조(2001), 『청원 아득이 고인돌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 판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23(1), 한국과학사학회.
- 안승모(2013), 『식물유체로 본 시대별 작물조성의 변천』, 『농업의 고고학』, 서울: 사회평론.
- 유지인(2012),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주고 연구』, 『한국고고학보』 85, 한국고고학회.
- 이동주·장호진(2012), 『어망추로 본 청동기시대 어로 양상』, 『야외고고학』 14,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최진묵(2013), 『중국 고대사회의 시간활용』, 『인문논총』 70, 인문학연구원.
- 하인수(2013), 『신석기시대 패총문화의 이해』,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8』,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Ahn, S. M. (2010), "The emergence of rice agriculture in Korea: archaeological perspectives", *Archa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ciences* 2(2), Springer.
- Armstrong, K., D. Herdrich, and A. Levine (2011), *Historic Fishing Methods in American Samoa*, NOAA Technical Memorandum NMFS-PIFSC-24.
- Bailey, G. (2008), *Time in Archaeology: Time Perspectivism Revisited*,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 _____ (1987), "Breaking the time barrier", *Archaeological Review from Cambridge* 6, Archaeological Review from Cambridge.
- _____ (1983), "Concepts of time in Quaternary prehistor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2, Annual Reviews.
- _____ (1981), "Concepts, time-scales and explanations in economic prehistory", *Economic Archaeology* (eds. A. Sheridan and G. Bailey), Oxford: British

Archaeological Reports International Series 96.

- Barrett, J. (1994), *Fragments from Antiquity*, Oxford: Blackwell.
- Bender, B. (1993), *Landscape: Politics and Perspectives*, Oxford: Berg.
- Bergmann, W. (1992), "The Problem of Time in Sociology", *Time & Society* 1(1), Sage Publications.
- Bintliff, J. ed. (1991), *Annales School and Archaeology*,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 Bloch, M. (1977), "The past and the present in the present", *Man* 12,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 Bohannan, L. and P. Bohannan (1953), *The Tiv of Central Niger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adley, R. (2002), *The Past in Prehistoric Societies*, London: Routledge.
- Cobb, C. R. (1991). "Social reproduction and the longue durée in the prehistory of the midcontinental United States", *Processual and Postprocessual Archaeologies* (W. Prucel ed.), Carbondale: Center for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Das, T. K. (1990), *The Time Dimension: An Interdisciplinary Guide*, New York: Praeger.
- Da Silva Sinha, V. et al. (2012), "Event-based time intervals in an Anazonian culture", *Space and Time in Languages and Cultures* (L. Filipovic and K. M. Jaszczolt eds.), Amsterdam: John Benjamins B. V.
- Durkheim, E. (1976 [1912]),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London: Allen and Unwin.
- Evans-Pritchard, E. (1939), "Nuer time reckoning", *Africa* 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ans-Pritchard, E. (1940), *The Nuer*, Oxford: Clarendon.
- Friedman, W. (2000), "Time and Anthropology", *Time in Contemporary Intellectual Thought* (P. J. N. Baert ed.), Amsterdam: Elsevier Science B. V.
- Geertz, C. (1973 [1966]), "Person, time and conduct in Bali",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C. Geertz ed.), New York: Basic Books.
- Grimal, N. (1994), *A History of Ancient Egypt*, Oxford: Wiley-Blackwell.
- Gell, A. (2000), "Time and Anthropology", *Time in Contemporary Intellectual Thought*

- (P. J. N. Baert ed.), Amsterdam: Elsevier Science B. V.
- Goody, J. (1991 [1968]), "Time: Soci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16* (D. L. Sills ed.), New York: Macmillan.
- Gosden, C. (1994), *Social Being and Time*, Oxford: Blackwell.
- Hallowell, A. I. (1937), "Temporal Orientation in Western Civilization and in a Pre-Literate Society", *American Anthropologist* 39(4),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 Hadji, A. (2004), "The Construction of Time in Aegean Archaeology: Archaeological Time and Third Millennium BC Aegean Chronology",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Heidegger, M. (1962), *Being and Time*, New York: Harper & Row.
- Ingold, T. (2000), *Th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essays o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London: Routledge.
- Khare, R. S. (1967), "The Concept of Time and Time-Reckoning among the Hindus. An Anthropological Viewpoint", *Eastern Anthropologist* 20, Ethnographic and Folk-Culture Society, Lucknow.
- Kim, J. S. (2014), "From Labour Control to Surplus Appropriation: Landscape Changes in the Neolithization of Southwestern Korea", *Journal of World Prehistory* 27, Springer.
- _____ (2003), "Land-use conflict and the rate of the transition to agricultural economy: A comparative study of southern Scandinavia and central-western Korea",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10(3), Springer.
- Knapp, B. ed. (1992), *Archaeology, Annales, and Ethno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ach, E. (2004 [1961]), "Two Essays Concerning the Symbolic Representation of Time", *Rethinking Anthropology* (E. Leach ed.), New York: Humanities Press. Oxford: Berg.
- Lefebvre, H. (2004), *Rhythmanalysis: Space, Time and Everyday Life* [S. Elden and G. Moore trans.], London: Continuum.
- Lee, G. A. (2011), The Transition from Foraging to Farming in Prehistoric Korea, *Current Anthropology* 52(S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J. J. (2001), "From shellfish gathering to agriculture in prehistoric Korea: the

- Chulmun to Mumun transition”,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Leone, M. (1978), “Time in American Archaeology”, *Social Archaeology: Beyond Subsistence and Dating* (C. L. Redman et al. eds.), New York: Academic Press.
- Levi-Strauss, C. (1966), *The Savage Min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_____ (1963), *Structural Anthropology (Vol. 1)*, New York: Basic Books.
- Lucas, G. (2005), *The Archaeology of Time*, Oxford: Routledge.
- Malinowski, B. (1927), “Lunar and seasonal calendar in the Trobriands”,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57,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 Mlekuž, D. (2010), “Bodies, houses, and gardens: rhythm analysis of Neolithic life-ways”, *Documenta Praehistorica XXXVII*, Department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Ljubljana.
- Munn, N. (1992), “The Cultural Anthropology of Time: A Critical Essa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1, Annual Reviews.
- Murray, T. ed. (1999), *Time and Archaeology*, London: Routledge.
- Norton, C. J. (2007), “Sedentism, territorial circumscription, and the increased use of plant domesticates across Neolithic-Bronze Age Korea”, *Asian Perspectives* 46(1), University of Hawaii Press.
- Poole, B. (2000), “On time: contributions from the social sciences”, *Financial Services Review* 9, Academy of Financial Services and the Financial Planning Association.
- Smith, V. and P. R. Reed (1978), “Time through Time: An Evolutionary Perspective”, Unpublished expanded version of a paper presented by V. Smith to the American Folklore Society, Portland, Oregon, 1974. http://soar.wichita.edu/xmlui/bitstream/handle/10057/1742/LAJ_v10_p1.pdf?sequence=1
- Shanks, M. and C. Tilley (1987), *Social Theory and Archaeology*, Oxford: Polity Press.
- Shuttles, W. (1987), *Coast Salish Essays*, Vancouver: Talonbooks.
- Thomas, J. (1996), *Time, Culture and Identity*, London: Routledge.
- Tilley, C. (1994), *A Phenomenology of Landscape*, Oxford: Berg.
- Thompson, E. P. (1967), “Time, Work 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Past and Present* 38, Oxford Journals.

- Wiramihardja, S. D. (2014), “Ethnoastronomy: The Sudanese of West Java and their Relation to Ethnoastronomy”, Newsletter, Center of Southeastern Asian Studies, Kyoto University.
- Wisnubroro, S. (1997), “An introduction of traditional time “Bulan Berladang” and its sameness to meterological status and its application in agriculture”, *Jurnal Ilmu Tanah dan Lingkungan* 1(1), Jurnal Ilmu Tanah & Lingkungan.

원고 접수일: 2015년 9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5년 10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0월 29일

ABSTRACT

The Archaeological Exploration of Social Time

- Towards a New Perspective on the Transition to Farming Society
in the Korean Bronze Age

Ko, Ilhong*

This paper considers possible ways in which the archaeological study of the ‘social time’ of past societies may take place. Focus is placed upon the notion of ‘social time’ because if it is acknowledged that ‘time is socially constructed’, then time may come to be regarded as an important element in understanding past societies. An examination of previous archaeological studies involving time reveals that the notion of ‘time as social’ was accepted as a given without further investigations into why it may be regarded as such. Therefore, the discourse on social time that was undertaken within the disciplines of anthropology and sociology is reviewed. In addition, anthropological and sociological case studies on social time are examined and used as heuristic devices in formulating a methodology for the archaeological study of social time. Finally, possible changes in time reckoning systems that may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the transition from a hunter-gatherer to farming society are explored in order to demonstrate how the study of social time may contribute to the broader discourse on the transition to farming society in Bronze Age Korea.

*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